

특별기획

정읍시 농촌진흥사업 신청

이달 20일까지 접수... 9개 분야 57개 시범·지원사업 대상



정읍시, 한우 정액 지원 이달 20일까지 신청해야

정읍시가 올해 한우 명품화를 위한 정액 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한우 개량과 우량 명품 한우 생산으로 정읍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지역 한우 암소는 5만3천두이다. 시는 이 중 85%인 4만5천두에 지원할 예정으로, 1등급 이상 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하는 경우 정액 1스트로 당 구입가격 1만원의 70%인 7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우 정액 지원사업은 정읍시 한우 산업의 기본이 되는 핵심 사업으로 정읍시 한우를 명품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액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액 지원 희망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곽노태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 39억8천100만원을 들여 농촌진흥사업 시범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모두 9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도행정 분야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등 2개 사업 ▲인력개발 분야 귀농창업 기반활동 지원 등 7개 사업 ▲생활지원분야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또 ▲시험연구분야 아스파라거스 재배 활성화 시범 등 2개 사업 ▲식량작물분야 고품질 잡곡 수확 후 처리 시스템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과수분야 채리 수확 유통시범 등 7개 사업 ▲배리산업분야 배리류 냉동 저장고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채소분야 시설 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 등 7개 사업 ▲축산분야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 등 8개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산업팀이나 농업인 상담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면 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9억8천100만원을 들여 9개 분야 57개 농촌진흥사업 시범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민과 소통·공감 위한 민생투어 릴레이 전개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 관내 복지기관·종자산업진흥센터 방문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18일 관내 복지시설과 종자산업진흥센터를 방문하며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민생투어 릴레이를 전개하였다. 이번 민생투어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복지, 서민금융지원 등 일자리와 복지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맞춤형 자원봉사자센터, 근로빈곤층에게 자립가능한 안정적인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지원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들과 민간육종연구단지내에 위치한 종자산업진흥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고용복지센터·자원봉사·자활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센터 관계자와 격식 없는 간담회를 갖는 등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각 센터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특별교부세 10억원의 공감을 통하여 올해 건립 예정 중인 '김제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관련 기간 간 공유·협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조성되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심장부인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찾아가 센터 내 시설물을 견학하고 올해 처음 방문한 청취와 대상부지도 시찰했다. 이 권한대행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 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시가 힘을 합쳐 종자산업을 이끈다면 우리나라가 종자산업을 선점하고 나아가 잃었던 종자주권을 회복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 보행자용 빛 반사 바림막이 배부

김제경찰서는 지난 17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박악국사거리 등 김제시내 일원에서 야간 활동이 잦은 어르신 보행자에게 빛 반사 바림막을 배부하면서, 야간 활동 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배부한 빛 반사 바림막이는 몸통 부분 앞·뒤에 유리소재 반사원단(고휘도)을 입혀, 야간 착용 시 전조등에 반사되어 멀리서도 사람의 형상을 쉽게 식별 가능 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야간 활동 시에 밝은 옷을 착용하면 가시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등 사고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어르신 등 보행자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전개했다.

황대규 경찰서장은 "바림막이 배부 외에도 어린이·노인층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전개로 차를 보고 건너는 안전한 보행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운전자 상대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태환, 민간위원장 박경준)는 18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 ▲2017년 자체 복지 사업 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법 ▲지역지원 발굴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에는 더욱 활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탄탄한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16년의 활동사항을 기본으로 2017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끌고 나갈 신규 복지사업을 구상하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박경준 공동위원장은 "협의체가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지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교월동장은 "지역복지발전에 우리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격려와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여성 행복시대 여는데 중심에 서겠다”

임익주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취임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취임식이 18일 김제시보건사회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이승복 시장권한대행, 김종희 국회의원, 내병문 시의회의장, 김효순 교육장, 도의원, 시의원, 여성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장에 대한 기념품 및 꽃다발 전달, 이임사, 여성단체협의회 회기 전달, 취임사, 축사 및 격려사, 신규 임원진 및 여성단체장 소개, 다과 및 환담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순애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 성원해주신 여러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임 임익주 회장은 "여대 회장님들이 쌓아놓은 업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며,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그 중심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회장은 현재 색동어머니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제 단야로타리 이사, 김제여자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제시평생학습센터 제2차 임원회 이사로 지역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원예심리치료사, 김장나누기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멘토링사업 등 위기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돈으로 이웃사랑의 온기를 나눬다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 복지시설에 한돈 370만원 상당 기탁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7일 김제시에 이웃사랑 실천으로 관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고 한돈(370만원 상당)을 기탁하였다. '이웃사랑 한돈 나눔'은 김제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한돈 농가들이 조성한 기금과 한돈자조금으로 한돈 소비 촉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기증한 돼지고기는 노인요양시설인 벨벳요양원 등 관내 사회복지

시설 25개소에 전달했다. 김일홍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소외됨이 없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는 매년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한돈(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주위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교육생 모집

정읍농기, 2월 6일까지 신청접수... 2월13일~5월10일까지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식품가공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될 이번 교육은 내달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된다. 9회에 걸쳐 식품 성분의 개요와 위생, 저장 등 필기시험 대비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필기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꼭류의두류·과채류 가공 등에 대한 실

기시험 대비 실습교육(5회)을 갖는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이고,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민 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지원팀(☎063.539-6271~3),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jongup.go.kr), 농민상담소,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선재 도소방본부장, 부안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이선재 전북 소방본부장은 17일 이선재 전북 소방본부장은 지난 17일 이선재 전북 소방본부장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계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 상설시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했다.

이날 이선재 전북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상인회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시장에 대해 세심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이선재 전북 소방본부장은 "평

소 시장상인회와 안전관리자 뿐 아니라 시장상인들도 화재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고 시장 내 소방출동로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소방서는 도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시장 내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편산반도 청정지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뽕주
Premium Obdi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편산반도 청정지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